

<2022 J.P.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스피치 주요내용>

간략한 회사 소개

- 씨젠은 '분자진단을 일상으로'라는 미션 하에 2000 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8 개의 법인과 100 여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음. 씨젠은 2020 년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1 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 억달러와 6 억달러를 기록했음.
-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에 맞추어 씨젠은 상황에 따른 변이진단 키트를 선보였으며 한 번의 검사로도 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비롯하여 호흡기 증상을 구분하는 키트, 또 fast PCR같은 진단 제품들을 선보여왔음.
-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대용량 검사를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검사 환경에 한계가 존재.

'위드코로나'를 위한 씨젠의 세가지 솔루션 제시

- 첫번째, 현장진단검사 솔루션.
 - 현재 저렴하며 빠르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여 많은 곳에서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, 무증상 환자의 경우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짐.
 - 이로 인해 항원검사로 위음성 판정을 받은 무증상 환자들이 코로나 19 를 더욱 확산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 - 씨젠의 현장 검사 솔루션은 항원 검사와 동일한 시간과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, 공항 및 직장과 같은 장소에서의 검사가 가능해짐.
- 두번째는 중앙검사소의 역량 증대.
 - 중앙검사소는 기존의 씨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병원이나 연구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검사 용량을 최소 두배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솔루션임.
- 마지막으로 호흡기 감염 유증상 환자 대상의 신드로믹 검사 방법.
 -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 19 의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다양한 원인균을 한꺼번에 검사하여 환자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판별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함.
 - 때문에 신드로믹 검사를 통해 환자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찾아내고,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함.

씨젠 MDx 플랫폼 청사진 설명

- 기존 신드로믹 진단제품 개발은 복잡하며 고속련 전문가에 의해 수동 방식으로 개발되어지고 있어 다양한 메뉴의 신드로믹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음.
- 씨젠의 MDx 플랫폼은 현재의 분자진단 제품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드로믹 제품 개발을 플랫폼 기반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음.
- 씨젠은 표준화된 개발 툴을 제공하여 시약 개발아이디어가 있는 그 누구라도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할 방침임.
- 지난 20 년간 쌓아온 씨젠의 모든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하여 시약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SGDDS(Seegene Digitalized Development System) 시스템을 제공하여 시약 개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, 노하우가 없는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신드로믹 진단제품을 만들 수 있음.
- 개발에 필요한 추출시약, 효소, 올리고 등 원재료는 물론 시약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이며 그렇게 개발된 시약의 정보는 씨젠의 플랫폼에 공개됨.
- MDx 플랫폼은 인간의 질병을 위한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동식물, 농업,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.

‘원시스템’(One System)

- 모든 신드로믹 검사 제품을 커버하는 ‘One-System’을 개발하여 소용량 POC 검사부터 대용량 자동화 검사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상적인 연구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.